

# 잇단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끄떡없네

11월 상승거래 홀로 늘어...광주 소폭 회복세·전남 하락세

지방 상승거래 비중 전월과 비슷...지역별 편차는 두드러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서울 지역에서는 상승거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소폭 상승에 그쳤고 전남은 하락세가 더 뚜렷해지는 등 지역별 온도차가 극명했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상승거래 비중은 45.3%로 전월(46.6%)보다 1.3%p 줄었다. 같은 기간 보합거래는 14.1%, 하락거래는 40.7%로 집계돼 매수세 둔화 흐름이 통계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상승거래 비중은 45.4%로 전월(47.6%) 대비 줄어들었다. 보합 비중은 16.1%에서 16.9%로, 하락거래는 36.3%에서 37.8%로 각각 커지면서 수도권 전반에서도 매수세 강도가 약화된 모습이다. 다만 서울은 이런 흐름과 달리 상승거래 비중이 52.2%에서 54.1%로 오히려 확대되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승폭을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전체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영등포구와 마포구, 동작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일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지표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 3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다소 조정됐다. 서초·강남·송파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10월 64.1%에서 11월 60.7%로 3.4%p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거래의 60% 이상이 상승거래로 나타나 고가 아파트 시장의 가격 방어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차이는 뚜렷했다. 경기도 상승거래 비중은 10월 45.7%에서 11월 44.2%로 하락했고, 인천은 43.6%로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직방 측은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며 거래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비규제 지역에서도 매수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확인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11월 상승거래 비중은 45.2%로 전월(45.4%)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으나 지역 간 편차는 두드러졌다. 울산이 49.2%로 가장 높았고 전북(49.0%), 부산(47.5%), 대전(46.9%), 대구(45.7%) 순으로 상승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광주는 43.9%로 소폭 회복 흐름을 보였다. 11월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승거래 비중이 전월 대비 소폭 늘었지만 상승세가 추세로 굳어질 만큼 뚜렷한 반등 신호로 이어지지 못했다. 반면 전남은 44.9%로 10월 대비 하락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매수세 위축이 더 길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역 중개업계에서는 "광주는 실수요 위주의 제한적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고 있지만 전남은 인구 감소와 공급 부담이 겹치며 매수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중소도시와 외곽 지역도 하락거래 비중이 여전히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직방 관계자는 "신규 공급이 제한적이고 산업 경기 회복 또는 생활·교통 인프라 확충 기대감 등 요인이 맞물리는 지방은 거래 활력이 유지되는 반면 중소도시나 외곽 지역은 여전히 매수세가 위축되며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공급 여건·입지·지역 경제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크게 갈리는 선택적 반등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 KDI “건설업 부진 지속에도 소비 중심 완만한 경기 개선”

반도체 호조로 수출 증가폭 키워

국가 정책 연구기관에서 두 달 연속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12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앞서 지난 5월 2년여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진단에 사용한 뒤, 10월까지 6개월 연속 ‘미약’, ‘낮은 수준’ 등 부정적인 경기 진단을 내놨다. 하지만 11월 경제동향에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진단에 포함하고, 이달까지 두 달 연속 경기 개선 추세를 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지만, 9~10월 2개월 간 추세를 보면 전년 동기보다 1.6% 증가했다. 경기 개선세는 소비가 견인했다. 금리인하 효과와 시차를 두고 경기 추세에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의 민생안정 소비쿠폰 등 지원 정책이 지속된 것으로 평가했다. 소매판매액은 10월 기준 전년 동기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9~10월 평균으로는 1.3% 증가했다. KDI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전산업생산의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예술 등 소비와 밀접한 부

문과 관련된 고용 부진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 수출은 10월 3.5% 증가하며 9월(12.6%) 대비 둔화했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11월에는 8.4%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수출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등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이 일부만 떠받치는 모양새다. 다만 반도체 수출 호조는 가격 급등에 기인한 것으로, 물량 기준으로 보면 낮은 증가세가 점차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KDI는 지적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공급 측 요인으로 상승률이 다소 높은 2.4%를 기록했으나, 기조적 물가 상승세는 물가안정목표(2%)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GICON ‘2025 광주 국제 이스포츠 포럼’ 성료

e스포츠 산업 미래 논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2일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한 ‘2025 광주 국제 이스포츠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NASEF(학문적·학업 중심 e스포츠 연맹 네트워크), 세계 e스포츠 연맹, 한국 e스포츠협회 등 주요 국내외 e스포츠 기관을 비롯해 프로게이머, 중계진, 언론 관계자 등 연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e스포츠 교육 모델 구축’, ‘글로벌 협력과 도시 혁신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게임, 인간, 그리고 문화·e스포츠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3개 세션을 통해

e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다. 참여자들은 e스포츠가 단순한 경기 콘텐츠를 넘어 교육 플랫폼이자 글로벌 커뮤니티, 나아가 하나의 문화적 자산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 청소년 교육과 연계한 e스포츠 교육 모델의 필요성, 국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방향, 지역 기반 e스포츠 인프라의 사회적 가치 등 미래 전략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이번 포럼은 시민 참여 문턱을 낮추고, e스포츠를 산업·문화·교육으로 아우르는 입체적 담론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며 “광주는 앞으로도 글로벌 e스포츠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e스포츠와 디지털 문화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과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와인하우스에서 직원이 모델 크리스마스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크리스마스 용품 미리 준비하세요...광주신세계 할인 프로모션

광주신세계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인기 아이템을 대폭 할인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본관 8층 해외 프리미엄 라이프 브랜드 편집숍인 ‘포커시’에서는 ‘뮤직박스 기차 빌리지’를 정가 대비 53.6% 할인한다. 눈 덮인 마을을 달리는 기차를 구경해 실내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아크릴 소재 크리스마스 트리인 ‘뮤직 오로라 화이트 아크릴 트리’도 40%가량 가격을 낮췄다.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와인하우스에서는 연말 홈파티에 적합한 와인들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연말 선물 용으로 인기가 많은 ‘모델 크리스마스’ 와인이 있다. 특별한 선물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CEO가 가장 선호하는 와인 1위’로 선정된 ‘로버트 몬다비 나파 밸리 까베르네 소비뇽’도 준비했다. 광주신세계 와인하우스는 12월 말까지 모델 크리스마스 와인을 정가보다 50%, 로버트 몬다비 나파 밸리 까베르네 소비뇽은 23% 할

인한다.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에 있는 ‘노티드’는 오는 17일까지 연말을 맞아 카카오톡 케이크 구매를 사전 예약한 고객에게 15% 할인한다. 사전 예약한 케이크 픽업은 19일부터 가능하다. 권혁원 광주신세계 식품생활팀장은 “크리스마스를 미리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광주신세계가 추천한 상품들과 함께 즐거운 연말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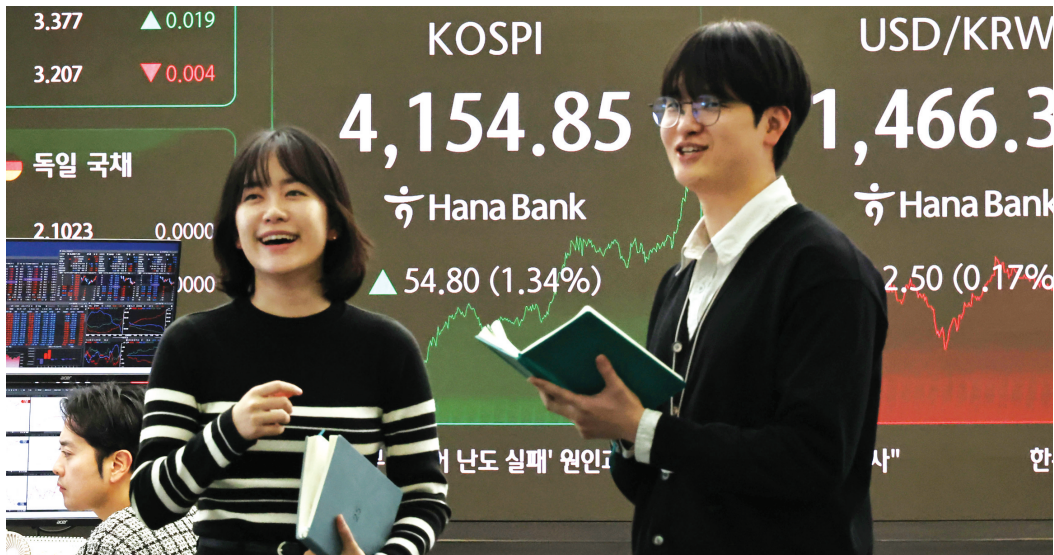
## 호남지방통계청 ‘담양군 노인등록통계’ 개발

5개 부문 60개 지표로 실태 진단

국가데이터터치 호남지방통계청은 8일 “담양군과의 협업으로 ‘2025년 담양군 노인등록통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담양군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복지, 건강 등 5개 부문에서 60개 지표를 선정해 세부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지역 노인 인구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된 노인 복지정책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

상으로 작성했다. 통계에 따르면 담양군 거주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만 5890명으로 남자가 6893명(43.9%), 여자는 8907명(56.1%)으로 집계됐다. 노인 가구는 9079가구로 조사됐다. 이 중 1인 가구는 3654가구(40.2%), 친족 가구가 5278가구(58.1%), 비친족 가구는 1477가구(1.6%)로 확인됐다. 담양 노인 인구의 월평균 가구 소비는 ‘50~200만원 미만’이 68%를 차지했다.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1%, 구직신청 건 수 179건이었다. 이들의 구직희망 근무지역은 거주하고 있는

담양군이 67.6%로 가장 높았고, 광주(18.4%), 전남(12.8%)이 뒤를 이었다. 담양군 노인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은 2020년(77.4%)부터 2024년(74.0%)까지 최근 5년간 지속 감소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3017명이었으며, 등급 인정자는 2333명으로 파악됐다. 노인들의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과 순환계통 질환이었으며, 의료서비스 이용 시설은 의원(64.1%)과 한방 병·의원(17.8%)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병우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은 “이번 통계 자료가 담양군의 노인정책 분야와 국·도·비 확보 등 사업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8일 서울 증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4.80포인트(1.34%) 오른 4,154.85에, 코스닥은 3.05포인트(0.33%) 오른 927.79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 ‘널뛰기’ 코스피, 연말 기대감에 1% 상승 마감

코스닥 3.05P 상승 강보합

코스피가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1%대 상승 마감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상존했지만, 연말 ‘산타 랠리’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4.80포인트(1.34%) 오른 4,154.8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9.20포인트(0.22%) 오른 4109.25로 출발한 후 박스권에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다가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상승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인 3213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3429억원, 307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11만원을 ‘타치’했다가 1.01% 오른 10만 9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약세였으나 상승 전환하며 6.07% 뛴 57만 7000원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05포인트(0.33%) 상승한 927.79에 장을 끝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4154.85 (+54.80)
▲ 코스닥	927.79 (+3.05)
▲ 금리 (국고채 3년)	3.034 (+0.040)
↓ 환율 (US D) 〈오후 5시 29분 기준〉	1468.65 (-0.15)